

## [ 오피니언 ]

## 光日春秋

김열규



'말 잘했다!'  
이건 청찬인가 하면 나무랄이고 또 빙자  
이기도 한 묘한 말이다. 빙잔일 때는 '말 같  
지도 않는 말', '여기 부리는 말' 따위를 의미  
한다. 그러니까 나무랄 때, '말 잘했다!'는  
이른바, 아이러니가 되는 셈이다. '말 같지도  
않는 말'을 뒤집어서 비꼬는 것이다 된다.

요즘 우리들이 신문을 읽고 TV를 보면  
서 무심코라도 자주 자주 '그 말 잘한다'  
라는 아이러니를 내뱉게 되는 것은 웬 까  
닭일까? 그나마 큰 자리, 높은 지위를 누  
리고 있는 사람들이 벌어하는 것을 들을  
때, 드물지 않게 시민들이 '그 말 잘한다'  
라고 말하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?

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신분이 높을수록  
그들 말이 땅바닥을 훑고, 진흙구덩이 속에 내리박히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 
일반 시민으로서도 과로운 일이다.

그러자니 예부터 자주 써온 말이 절로  
생각난다. '신언서판(身言書判)'! 바로 이  
한마디다. 하지만, 오늘날 그게 잊혀지고  
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. 그나마 상당한

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그런 것 같아서 마음 아프다.

그래서 새삼, 경구(警句)라고 해도 좋고

잡언(箴言)이라고 해도 좋을 '신언서판'을

되새겨 보자. 몸가짐과 말과 서예(書藝)와

그리고 판단력, 이 네이 다름 아닌, '신언'

## 말, 함부로 하지 말 것

서판'이다.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 
으로 한 인간의 능력과 인품을 매기는 '4  
대 기준'이 되어 왔다. 특히 '선비'며 벼슬  
아치에게서는 절대의 기준이었다.

한데 오늘 날 서(書)가 컴퓨터의 자판(字  
板)찍기에 밀려나면서 덩달아서 '신언서판'의  
셋도 한꺼번에 퇴락하고 있는 것 같다.

언(言)을 말이라고만 했지만 그렇게 단  
순차는 않다. 언은 말의 내용만 가리키지

는 않는다. 논리도 '언'이고 따라서 말투,

말버릇도 물론 '언'이다. 더욱이 언행(言  
行)이라면서 언이 행동이며 행위와 짝지

어서 사용된 것은 매우 큰 뜻을 품고 있다.  
언행일치라면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 
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 말이 곧 행동이  
요 행위가 바로 말임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 
있다. 말을 떠난 행동이 없듯이 행위를 떠  
난 말이 없다는 것도 심문 의미하고 있다.

뿐만 아니다. 신(身)과 짹지어서 신언  
(身言)이 되면 몸가짐이며 행실이 곧 언  
이어야 언어가 다른 아닌 처신(處身)임에  
대해서 말하게 된다.

'언행'이나 '신언'이나 어차피, 말이 인  
간이고 인간이 곧 말임에 대해서 일러주고  
있다.

께서 '그래 말 한번 잘한다'는 아이러니를  
들을 적마다 나리꼴이 구겨질 게 뻔하다.

언책(言責)이란 말이 오래도록 사용되어  
왔다. 그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. 하  
나는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  
의 이익이나 복리를 위해서 마땅히 할 말  
해야 하는 책무를 의미한다. 공중을 위해  
서 중론을 모아서 말해야 하는 책임이라  
고 해도 좋다. 한데 또 다른 하나는 말한  
사람이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죄여  
하는 책임이다.

이 두 가지 의미의 언책이 제대로 구실  
을 대하고 또 지켜질 것을 전제하고서야  
공인(公人)은 공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.  
그리야 '신언서판'이 살고 그의 인품도 지  
켜진다. 그렇지 못한다면 이에 입 닫아야  
한다. 정말이다. 할구부언해야 한다.

오늘날은 여론의 시대다. 종론과 공론  
의 시대다. 그건 제 혼자의 생각을 잘난 척  
하고는 떠벌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  
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.

공인(公人)들의 공적인 발언은 시민들  
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을 먼저 배려해야  
한다. 그렇지 못할 바에 침묵을 지키는 것  
이 차리리 현명할 것이다. 그들에 게아 말로  
침묵이 금일 것이다. <서강대 명예교수>

※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  
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독자투고 환영합니다.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를 써주세요

501-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/전화 062-2200-634/팩스 062-222-4918/e메일 opinion@kwangju.co.kr



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

교포들에게 언제 '미국에 오길 잘 했  
다'는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'자녀  
교육'을 첫 손에 꼽는다.

교육의 질 자체가 좋다는 의미도 있  
다.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도시락  
몇 개씩 싸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  
에 보내는 '불쌍한' 아이들을 만들지 않  
아도 된다는 점을 '잘했다'는 이유로 내  
세운다는 것이다.

이곳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 
까지 오후 2시 정도면 수업을 끝내고 집  
에 온다. 그리고는 밤까지 친구들과 어  
울려 운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 
자유 활동을 한다.

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 식당  
이나 가게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용  
돈도 벌고 사회 경험을 쌓는다.

대학입학 사정 기준도 시험성적이 아  
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회활동 경력이  
적으면 잘 뽑아주질 않는다.

특히 납을 도와주는 자원봉사활동의

또 한국의 경우 아무리 평소실력이  
좋더라도 입학 시험 한번 잘 치루면  
평생동안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  
다.

반면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미국의  
방식 때문인지, 이 곳에서는 고등학교  
학년에 상관없이 일 년에 몇 차례씩 있  
는 시험에 자유로 움을 허용하여 몇 번이고  
시험을 볼 수 있다. 자기가 본 시험 성적  
중 자기가 원하는 가장 높은 점수의 것  
을 택해 여러 대학에 응모한다.

한국 부모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  
녀 교육의 목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  
하도록 하는 것 같다.

유치원 시절부터 시작, 대학을 마치

고 사회 직장까지도 계속 등수를 매기  
아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될 주  
변 사람들은 친구들과 동시에 경쟁상대  
인 적이 되는 미묘한 관계가 된다.

미국의 경우 학교에는 등수라는 것이  
거의 없다. 이들이 생각하는 출세의 개

## '불쌍한' 아이들 만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

경험을 중요시한다. 그러다가 대학에  
들어가면 거의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  
면서 밤중까지 도서관에서 살지 않으면  
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공부  
한다. 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면서 운동  
하여 체력단련을 하지 않은 학생은 벼  
티기 힘들 정도다.

'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 
얻을 수 없다'(No pain no gain)는 것은  
불변하는 생물학의 이치이다. 자식을  
빼앗아 고생을 경험 하도록 하는 것  
은 그의 생존을 돋는 진정한 사랑이며,  
과잉보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인정

으로써 자식을 망치는 행위라는 것을  
알기 때문에 여기 부모들은 부자일수록  
학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벌  
어서 해결하도록 고생을 시킨다.

자녀들 역시 부모의 도움으로 학자금  
마련하는 것을 일종의 수치로 느끼는  
경향이 있어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 하  
더라도 스스로가 학자금 마련하는 것을  
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.

념도 다르다.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  
고 행복한 삶에 무게를 둔다. 높은 지위  
는 스트레스가 많아 행복한 삶을 저해  
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려는  
경향도 있다.

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평범하고  
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성공의  
척도로 여기는 것, 미국인들의 삶의 방  
식이다.

경쟁 보다 오히려 같이 더불어 사는  
길을 택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  
다.

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도 아래로  
내려가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  
된 사람이다. 다른 사람위에 군림하  
도록 교육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  
지 못한다. 아이들끼리 하는 운동이나  
직장 연수 프로그램에서 행해지는 게임  
같은 것도 정복해 혼자 정상에 오르는  
경쟁적인 것보다도 같이 협동해야만 풀  
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도 이에 근거한  
다.

야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 
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승용차가 많다.

졸음도 오고 장거리 운행 중 지치기도  
하겠지만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 
쉬는 것은 거의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.

차량 내부에 어린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 
위험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.

더 안타까운 것은 갓길 주정차 휴식객들  
에게 위험을 알리고 차를 빼줄것을 요구하  
는 고속도로 관리공단 직원들이나 경찰들  
의 조치에 오히려 "왜 갓길에서 쉬는 것조  
차를 빼라 마라 하느냐"며 항의하는 운  
전자들이 있다는 점이다. 이는 자신의 생명

생이 잊지 못할 열흘간의 화려한 휴가가  
있었으며,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.

옛말에 사가독서(賜暇讀書)라는 말  
이 있는데 이는 일과에 신하에게 휴가  
를 주면서 휴가의 명목으로 독서를 하  
라는 것이다.

무릇 이렇듯이 휴가란 꼭 산으로 바  
다로 놀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 
이처럼 독서로 마음을 수양하기도 한  
다.

이번 휴가 길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와  
인권을 위해 희생하여 길고 긴 화려한  
휴가에 들어가 영면하신 5·18민주영령  
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에 잠시 들러 참  
배하고 주모하면 어떨까 싶다.

<국립 5·18민주묘지관리소 시설과장>

## 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쉬는 것은 자살행위

을 구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무례가 아닐수  
없다.

또 고속도로상의 각종 사고와 경찰관이나  
구급차가 긴급출동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  
고 갓길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런 차량 덕에  
종종 어려움을 겪는다.

야간에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갓길  
차량이 주행하는 것처럼 차시현상도 일어나  
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은 야간에 졸음이  
오면 필히 휴게소를 이용하고, 휴게소 거리  
가 멀어 잠지 못할 정도이면 고속도로 중간  
중간에 위치한 비상주차대에서 휴식을 취하  
는게 안전하다.

▲인효령·목포시 청병동

## 이사갈 때 깨끗이 청소하고 떠나는 게 매너

목포에서 살고 있는 친정 부모님을 위해 고  
향 여수에 아파트를 마련, 이사를 했다.

그런데 살고 있다 이사를 간 주민이 남겨놓은  
쓰레기 더미 때문에 치우느라 애를 먹었다.

주민에는 음식 쓰레기가 남아 더위에 썩  
어 냄새가 났고 방마다 신문지 더미와 종이  
류, 그리고 안방에는 버리고 간 이불까지 방  
치워 있었다.

이사를 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해서는

안된다. 자기집에서 이사를 가면 누구든 곧  
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게 마련이다.

자신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누가 치우라는  
것인가. 쓰레기 봉투 사서 써야 하는 것,

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.  
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울것인지 어처구니  
가 없었다. 이사갈때는 깨끗이 마무리 짓고  
떠나는 최소한의 메너를 지키자.

▲부여영·목포시 서산동

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.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,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  
고나 사진, 만화, 만평도 환영합니다.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.

## 시 설

## 2단계 균형발전계획 실효성이 문제다

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 
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수도권의 기  
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 
핵심이다.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 
지방 이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차등  
감면하고 도시개발권 등 혜택을 부여하기  
로 했다. 1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이 뚜  
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 
정부가 균형발전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 
점이다. 할구부언해야 한다.

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최우선  
국정과제다.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  
전 특별법을 제정,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 
혁신도시, 기업도시 등 지방 분산정책  
을 추진해왔다. 하지만 사업이 진행 중  
에 있어 그 효과는 2010~2014년 이후  
에나 기시화될 전망이다.

인구와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 
매우 심각하다.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 
말 전체 인구의 48.7%였으나 2011년  
50.1%, 2030년에는 54.1%까지 증가할  
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또 기업의 본사  
가 수도권에 몰려 법인세수의 79%에  
달하고 있고 문화와 교육, 의료시설 등  
도 지방과 협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.  
이런 현실에서 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  
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.

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. 법인세  
감면으로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계가  
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. 기업의 입지는  
세계 협력보다는 교통, 관련시설 등 인  
프리와 시장과의 접근성 등에 의해 결정  
된다.

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 
해소하고 환경오염과 집값 상승, 사회·  
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  
할 수 있다. 정부는 지방에 대한 충족적  
인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 등 획기적  
대책을 마련,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실  
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. 투자의 효율  
성 등을 들어 균형발전정책에 제동을  
거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.

정치권, 전경련 회장 쓰소리 되새겨야

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  
회장이 정치권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  
판했다. 조 회장은 25일 제주에서 열린  
'CEO 하계 포럼'에서 '정치인들은 자  
기네를 이익을 좇아 다니고 이합집산하  
기 때문에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없다'  
"정부는 행정하기 쉽게 자기네를 위주  
로 해 버린다"고 불만을 토로했다.

재계 수장이 정치권과 정부를 차갑  
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. 그만큼  
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 
높다는 것을 의미한다. 다시 말해 정  
부와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 
우리 경제가 산드위치 수렁에서 빠져나  
올 수 없다는 재계의 위기의식이 이번  
발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.

정부는 이날 자진한 듯 비판의 발  
언을 쏟아냈다. 그는 "우리는 주인이고  
정치는 공복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 
되고 있다" "정치지도자들은 자기가 좋  
아하는 이익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  
은 잘못"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 그러  
면서 시장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기  
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 
주문하기도 했다.

조 회장의 발언이 아니라도 현 정  
치권의 실상은 한심하기 그지없다. 나  
라 살림이나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<br